

일자리 분포의 지역격차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교를 중심으로*

강 동 우**

본 연구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2013~2020년 기간 동안에 나타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분포의 지역격차를 업종 및 직종별 취업자 수와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의 상대적 임금수준 하락과 일자리 감소가 진행된 반면, 수도권에서는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이 부상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에 대한 고임금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일자리 분포의 지역격차 확대는 고숙련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집중할 경제적 요인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1. 머리말

세계화 속에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과정에서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도시와 지역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OECD, 2007). 도시경쟁력 측면에, 인구와 생산의 집적으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 즉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의 긍정적 외부효과는 지역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집적은 주택, 환경, 사회서비스 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적절한 도시 및 지역의 집중 또는 지역격차에 대한 논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쟁이 되어 왔다. 지역격차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 있지만, 격차의 정도와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건전하고 건설적인 논의의 출발점임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으로 수행된 김태완 외(2023), 『한국사회 격차현상 진단과 대응전략 연구』의 제II부 제1장의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dwkwang1982@kli.re.kr).

이 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의 현황과 추세를 일자리 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총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인구와 생산의 수도권 집중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이상호, 2022). 지방소멸과 지역경제 및 인구이동을 연구한 실증분석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일자리 격차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예: 구형수 외, 2018; 최광성 외, 2018; 이종관, 2019; 한요셉·윤참나, 202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 분포의 지역격차를 살펴보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분포의 지역격차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통계청 MDIS에서 제공하는 ‘지역별고용조사 A형 상반기(4월 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였다. A형 자료는 시군 지역 수준에서 업종과 직업을 중분류까지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기간은 조사 주기가 반기로 변경된 2013년 상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로 설정하였다. 분석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며,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정의한다. 지역별고용조사는 표본조사로서, 지역별 고용 통계치를 계산할 때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가중치는 분석 표본인 개인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광역 시도 가중치, 기타 지역은 시군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분포의 지역격차를 살펴볼 때, 최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산업 분류에만 의존하여 일자리 분포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업종과 함께 직종에 따른 일자리 수와 임금수준의 격차를 함께 살펴본다.

II. 업종별 일자리 분포의 지역격차

1. 취업자 수

먼저 비수도권 및 수도권 총 취업자 수 추이와 연령대별 취업자 수의 지역격차 추이를 [그림 1]에서 살펴본다. 그림의 좌측 열의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보면, 2013년 비수도권 총 취업자는 12,629천 명, 수도권은 12,387천 명을 보인 이후 2017년까지 두 지역 모두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비수도권 취업자가 더 많은 차이가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에는 비수도권 총 취업자가 감소하였고, 이후 수도권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비수도권(13,101천 명)과 수도권(13,097천 명)의 총 취업자 수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성별을 구분하더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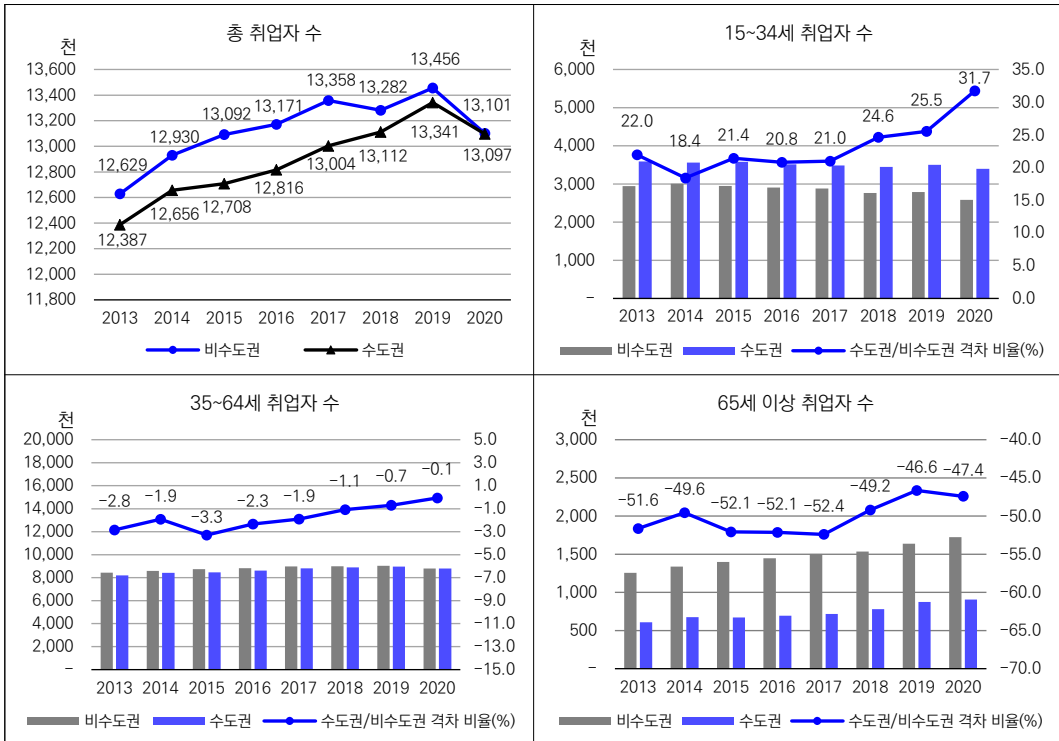
연령을 15~34세, 35~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비수도권 취업자 수에 대비하여 수도권 취업자 수가 더 많은 정도, 즉 지역 간 격차를 식 (1)과 같이 정하였을 때, 2013년 기준으로 15~34세는 수도권이 22.0% 더 많았다. 반면 35~64세(-2.8%)와 65세 이상(-51.6%)은 비수도권이 더 많았다.

$$\text{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비율(\%)} = \frac{(\text{수도권 취업자 수} - \text{비수도권 취업자 수})}{\text{비수도권 취업자 수}} \times 100 \quad (1)$$

15~34세의 경우, 2018년 이후에 수도권 취업자가 더 많은 경향이 점차 강화되어 25% 수준을 보였고, 2020년에는 격차가 급격히 증가하여 31.7%를 나타냈다. 35~64세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비수도권 취업자가 더 많았지만, 2016년(-2.3%) 이후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격차가 -0.1%로 수도권 취업자 수가 비수도권과 거의 같아졌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2018년 이후 대체로 비수도권 취업자가 더 많은 정도가 약화되었다.

[그림 1]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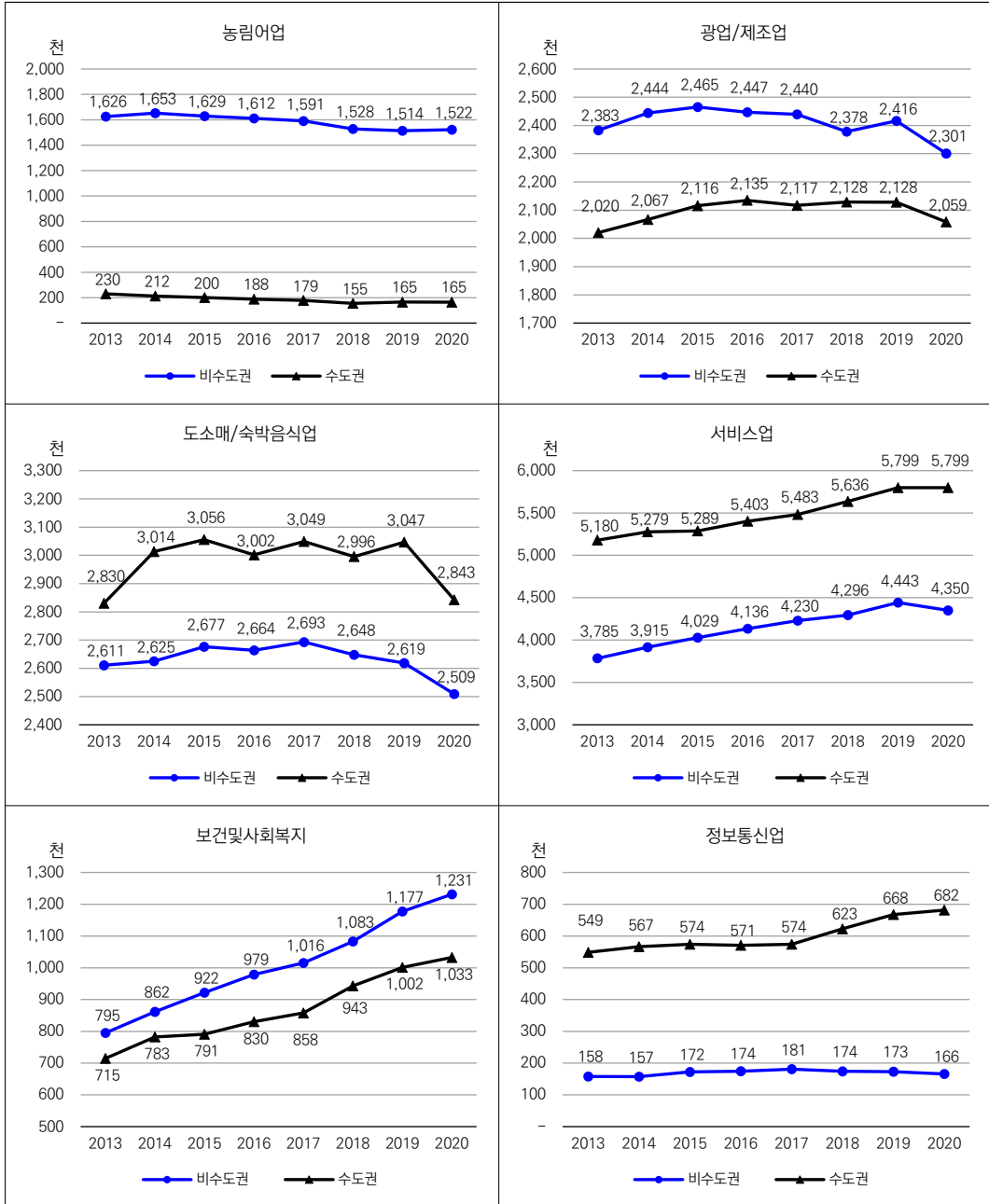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비율(%)은 '(수도권 취업자 수-비수도권 취업자 수)×100'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A형), 2013~2020년. 저자 작성.

[그림 2] 업종별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주: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음(산업 대분류 기준): J. 정보통신업, K. 금융및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A형), 2013~2020년. 저자 작성.

[그림 2]는 업종별 취업자 수를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나타낸다. 농림어업의 경우 비수도권 취업자가 월등히 많으며, 2013년 이후 비수도권과 수도권 모두 취업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 다소 증가한 특징이 있다. 광업·제조업의 경우, 비수도권의 규모가 더 크고 2015년 이후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반면 수도권은 2015년 이후 다소 등락은 있지만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두 지역 모두 큰 취업자 감소를 보였는데 특히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진다.

도소매·숙박음식업의 경우, 수도권이 더 많은 취업자 수를 보이고, 2020년을 제외하면 등락을 보이며 3백만 명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비수도권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두 지역 모두 취업자 감소를 보였고, 수도권에서 두드러진다.

서비스업의 경우, 수도권의 취업자가 비수도권에 비해 더 많으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추세를 보인다. 2020년에는 두 지역 모두 취업자 감소를 보였는데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진다. 서비스업 중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업과 정보통신업을 분리하여 살펴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경우 비수도권과 수도권 모두 지속적인 취업자 증가 추세를 보인다. 반면 정보통신업은 2018년 이후 수도권 취업자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 반면, 비수도권은 완만한 감소를 나타냈다.

2.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그림 3]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의 평균 명목임금과 식 (1)의 방식으로 계산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격차 비율 추세를 나타낸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경우, 2013년 이후 평균 명목임금은 수도권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이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3~2015년 기간에는 수도권 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정도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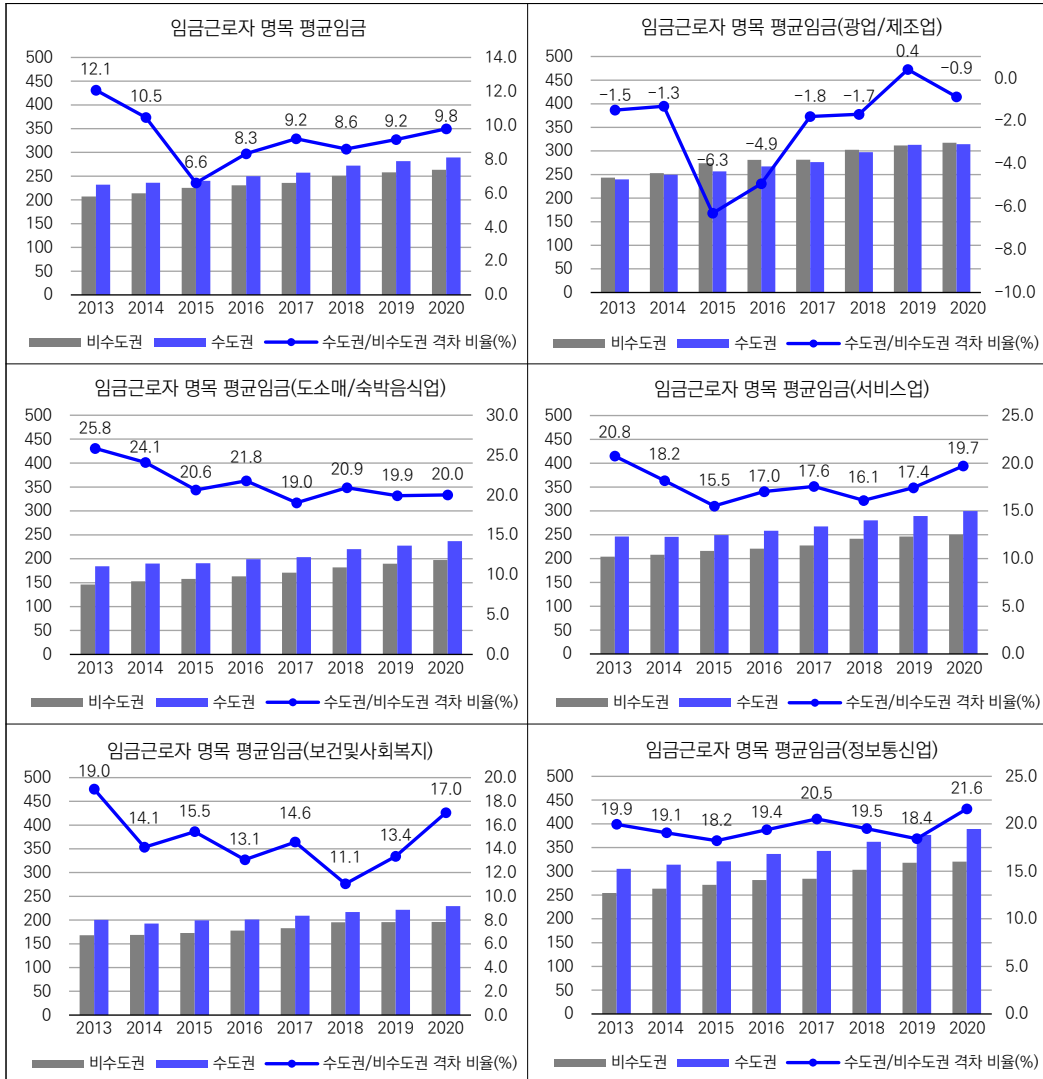
업종을 구분하였을 때, 평균 명목임금 수준의 증가 추세는 유사하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격차는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광업·제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비수도권의 평균 임금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도소매·숙박음식업의 경우, 수도권의 평균 임금수준이 더 높으며, 2015년 이후로는 약 20% 정도의 임금격차가 유지되는 추세를 보인다. 서비스업의 평균 임금은 수도권이 더 높은 수준이나 2013~2015년에는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대체로 다시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특히 2020년에는 약 20%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서비스업

을 세분화하였을 때, 보건 및 사회복지업은 2018년 이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정보통신업은 분석기간 동안 등락이 있으나 수도권 평균 임금이 약 2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2020년에 지역격차가 비교적 크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8.4%→21.6%).

[그림 3]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격차(업종별)

(단위 : 만 원/월(명목), %)



주 : 1)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비율(%)은 $\{(\text{수도권 평균임금} \div \text{비수도권 평균임금}) \times 100\} - 100$ 으로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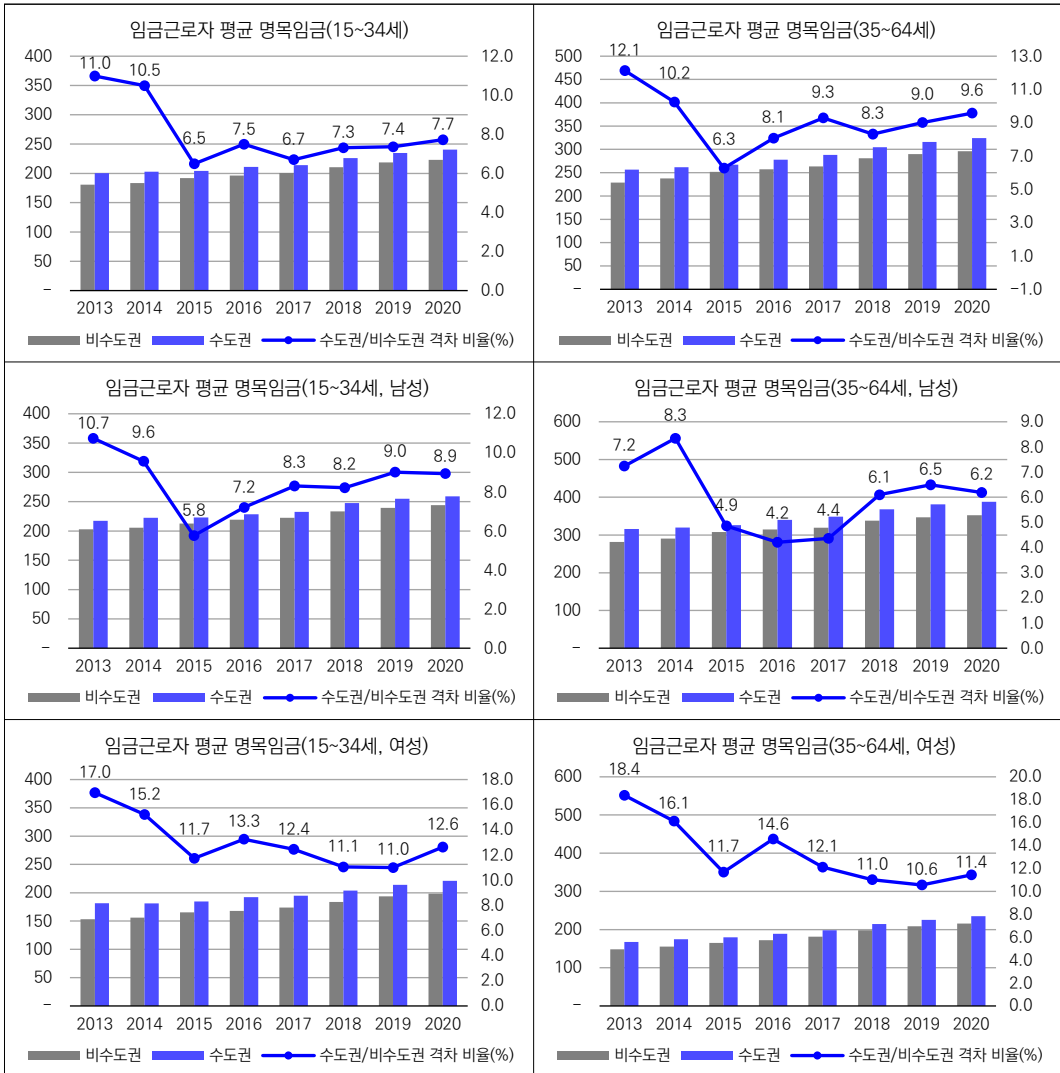
2)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음(산업 대분류 기준): J. 정보통신업, K. 금융및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A형), 2013~2020년. 저자 작성.

[그림 4]는 15~34세 및 35~64세 연령대별 평균 임금과 이를 성별로 구분한 결과를 나타낸다. 15~34세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수도권이 더 높고, 2016년 이후 약 7% 이상의 임금격차를 나타낸다. 임금격차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35~64세의 경우에도 유사한데, 임금격차 수준은 2016년 이후 8%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격차의 정도는 15~34세의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격차(연령대별)

(단위 : 만 원/월(명목), %)



주 :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비율(%)은 $\{(\text{수도권 평균임금} \div \text{비수도권 평균임금}) \times 100\} - 100$ 으로 계산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A형), 2013~2020년. 저자 작성.

그러나 성별을 구분하면 임금격차의 정도가 2017년 이후에는 15~34세 연령대에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15~34세 연령대는 2017년 이후 8~9%의 임금격차를 보인 반면, 35~64세는 약 6.5% 수준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15~34세는 11~13%, 35~64세는 11~12%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III. 직종별 일자리 분포의 지역격차

1. 직종별 취업자 수

〈표 1〉은 직종별 취업자 수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식 (1)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2013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취업자가 더 많은 직종은 관리자(6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9.0%), 사무 종사자(37.5%), 판매 종사자(8.4%)로 나타났다.

직종별 지역격차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2018년 이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 직종에서 특히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가 발견된다. 특히 2020년에 지역격차가 비교적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경우, 비수도권 취업자가 더 많으나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표 1〉 직종별 취업자 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단위: %, 천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년 취업자 수	
									비수도권	수도권
관리자	60.5	24.8	15.7	21.7	9.3	5.6	15.8	15.5	144	16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9.0	47.9	45.7	40.9	44.7	49.8	49.2	54.7	2,151	3,327
사무 종사자	37.5	27.4	27.8	30.6	29.3	29.4	30.8	33.5	2,032	2,714
서비스 종사자	-6.9	-4.2	-7.9	-10.9	-11.7	-10.8	-13.8	-14.2	1,549	1,330
판매 종사자	8.4	16.8	16.8	17.0	15.3	14.2	21.0	15.4	1,268	1,46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4.9	-86.4	-86.8	-88.1	-88.3	-89.3	-88.8	-88.9	1,468	16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0	-11.1	-8.6	-8.3	-10.8	-8.1	-5.8	-5.5	1,169	1,10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2.4	-23.4	-23.0	-21.7	-22.7	-25.5	-28.2	-25.3	1,720	1,284
단순노무 종사자	-6.2	-5.1	-9.5	-7.0	-5.6	-3.0	-4.1	-3.5	1,599	1,542

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비율(%)은 $\frac{(\text{수도권 취업자 수} - \text{비수도권 취업자 수}) \times 100}{\text{비수도권 취업자 수}}$ 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A형), 2013~2020년. 저자 작성.

〈표 2〉와 〈표 3〉은 직종별 지역격차를 각각 성별을 구분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남성의 경우(표 2), 총 취업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의 지역격차(2013년 전체 : 49.0%, 남성 : 67.3%)가 더 크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표 3)은 사무 종사자(2013년 전체 : 37.5%, 여성 : 45.4%)의 지역격차가 더 컸다. 남성은 2018년 이후, 여성은 2019년 이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의 지역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에 주목할 특징

〈표 2〉 직종별 취업자 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남성)

(단위 : %, 천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년 취업자 수	
									비수도권	수도권
관리자	62.2	27.0	18.1	23.7	9.4	14.5	21.4	19.9	120	14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7.3	69.0	67.0	62.4	68.5	75.1	75.9	80.3	1,025	1,848
사무 종사자	31.5	21.6	20.4	23.0	20.8	21.1	21.5	23.4	1,082	1,336
서비스 종사자	-0.3	4.0	-2.7	-4.3	-2.7	-2.9	-7.5	-9.9	507	457
판매 종사자	19.0	28.8	30.0	31.1	26.6	24.3	34.6	25.8	606	76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2.5	-83.8	-84.6	-86.2	-86.3	-87.2	-86.3	-86.5	818	11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9.7	-15.3	-12.6	-11.2	-12.7	-10.6	-8.7	-8.0	1,037	95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2.3	-23.1	-23.0	-21.9	-22.4	-24.9	-27.9	-24.9	1,511	1,134
단순노무 종사자	-7.7	-7.9	-12.9	-12.6	-5.8	-5.2	-5.7	-2.7	830	808

주 :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비율(%)은 $\{(\text{수도권 취업자 수} - \text{비수도권 취업자 수}) \times 100\} - 100$ 으로 계산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A형), 2013~2020년. 저자 작성.

〈표 3〉 직종별 취업자 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여성)

(단위 : %, 천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년 취업자 수	
									비수도권	수도권
관리자	46.6	8.5	-5.0	5.9	8.9	-36.3	-10.9	-6.5	24	2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0.2	27.2	25.3	20.8	23.2	26.8	26.1	31.4	1,126	1,479
사무 종사자	45.4	34.8	37.5	40.1	40.3	39.5	41.7	45.1	950	1,379
서비스 종사자	-10.2	-8.2	-10.5	-14.0	-15.9	-14.5	-16.8	-16.2	1,042	873
판매 종사자	-1.3	6.0	5.2	4.7	5.2	4.9	8.9	6.0	663	70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7.7	-89.3	-89.5	-90.3	-90.8	-91.8	-92.0	-91.8	651	5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7	23.9	23.5	14.6	3.4	9.6	16.7	14.0	132	15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2.9	-25.3	-22.5	-20.8	-24.9	-29.2	-30.6	-28.2	209	150
단순노무 종사자	-4.7	-2.3	-6.1	-0.9	-5.5	-0.6	-2.3	-4.5	769	734

주 :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비율(%)은 $\{(\text{수도권 취업자 수} - \text{비수도권 취업자 수}) \times 100\} - 100$ 으로 계산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A형), 2013~2020년. 저자 작성.

으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비수도권이 더 많았으나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이다.

〈표 4〉와 〈표 5〉는 연령대를 구분하여 직종별 지역격차 추세를 나타낸다. 동일 직종에 대해서 15~34세(표 4)와 35~64세(표 5)의 지역격차 정도를 비교하면, 15~34세 연령대에서 특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직종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함을 확인

〈표 4〉 직종별 취업자 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15~34세)

(단위: %, 천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년 취업자 수	
									비수도권	수도권
관리자	66.6	16.9	-0.1	17.5	-26.0	-17.0	-4.5	-8.1	5	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3.9	51.7	53.1	49.4	50.9	62.6	61.4	69.7	661	1,122
사무 종사자	50.8	38.3	40.3	45.8	44.3	49.3	54.0	59.7	563	900
서비스 종사자	18.4	19.4	26.1	20.1	19.4	12.3	11.6	18.5	333	395
판매 종사자	35.2	37.8	42.0	41.7	38.7	33.2	51.4	45.5	266	38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2.1	-82.9	-83.3	-87.2	-86.3	-89.5	-85.7	-87.9	41	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9.8	-27.1	-26.9	-19.8	-22.7	-8.9	-12.2	-3.5	188	18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9.1	-42.0	-35.3	-38.3	-38.7	-41.6	-44.8	-35.8	320	205
단순노무 종사자	-9.8	-14.4	-13.5	-15.2	-6.6	-1.2	-7.8	-1.4	203	200

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비율(%)은 $\{(\text{수도권 취업자 수} - \text{비수도권 취업자 수}) \times 100\} - 100$ 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A형), 2013~2020년. 저자 작성.

〈표 5〉 직종별 취업자 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35~64세)

(단위: %, 천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년 취업자 수	
									비수도권	수도권
관리자	60.9	25.2	18.3	22.2	14.7	4.9	18.0	15.6	130	15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5.9	45.4	41.4	36.8	42.1	43.7	43.4	48.3	1,444	2,141
사무 종사자	29.1	20.7	21.3	23.3	22.1	20.9	21.4	23.6	1,429	1,767
서비스 종사자	-13.9	-11.5	-17.4	-18.3	-18.9	-15.8	-19.5	-20.9	1,069	846
판매 종사자	4.6	15.0	13.0	14.2	13.3	13.3	17.3	11.9	890	99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4.0	-85.1	-85.7	-87.0	-86.8	-87.9	-88.1	-88.3	674	7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5	-6.5	-3.7	-4.7	-6.6	-6.4	-3.4	-4.7	914	87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8.7	-19.1	-20.5	-18.3	-19.6	-22.9	-25.6	-24.6	1,296	977
단순노무 종사자	-4.6	-4.1	-7.3	-3.6	-2.6	1.4	0.6	1.4	949	962

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비율(%)은 $\{(\text{수도권 취업자 수} - \text{비수도권 취업자 수}) \times 100\} - 100$ 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A형), 2013~2020년. 저자 작성.

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의 격차가 각각 60% 및 50% 이상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인다.

2. 직종별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표 6〉은 직종별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 격차를 나타낸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수도권의 임금수준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종별로 임금격차의 정도에 등락이 나타나지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2018년 이후 임금격차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반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 비수도권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2015년 이후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성별을 구분하더라도 유사하다.

〈표 6〉 직종별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단위: %, 만 원/월)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년 명목임금	
									비수도권	수도권
관리자	20.0	22.2	13.0	13.5	27.7	17.5	22.9	19.0	568	67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0	16.1	13.0	15.3	16.3	13.7	14.9	16.9	316	369
사무 종사자	7.5	7.5	4.4	5.3	4.9	4.8	3.3	1.9	313	319
서비스 종사자	5.2	4.9	2.2	2.4	3.3	1.0	1.3	0.5	184	185
판매 종사자	11.5	12.2	6.6	10.7	9.8	8.0	10.3	9.8	212	23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9	10.2	-2.0	27.0	-0.9	0.0	3.8	-8.2	235	21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6.8	-11.6	-6.8	-4.6	-3.1	-1.2	-2.7	277	27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9	-7.4	-11.3	-11.2	-8.6	-6.8	-6.8	-6.3	293	275
단순노무 종사자	6.3	5.0	4.1	5.4	4.9	8.7	7.4	10.9	146	162

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비율(%)은 $\{(\text{수도권 평균임금} \div \text{비수도권 평균임금}) \times 100\} - 100$ 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A형), 2013~2020년. 저자 작성.

3. 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 직종별(중분류) 취업자 수

2018년 이후 취업자의 수도권 집중이 특히 심화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종을 중분류로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을 제외하면 모든 직종에서 수도권 취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분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에서는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

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에서 지역격차가 100% 이상, 다시 말해 수도권 취업자가 비수도권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분류 사무 종사자 중에서는 법률 및 감사 사무직의 지역격차가 70%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중분류 직종은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으로, 2015년 지역격차가 404% 수준을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특히 2018년 417% 이후 지역격차의 정도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474%로 나타났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중분류 세부 직종에서 지역격차가 두드러지는 특징은 성별을 구분하더라도 유사하였다. 연령대를 구분하였을 때, 35~64세에 비해 15~34세 연령대에서 지역격차의 정도가 더 컸다. 2020년 기준으로,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의 15~34세 지역격차는 538%, 35~64세는 442%로 나타났다.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15~34세: 260%, 35~64세: 15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15~34세: 207%, 35~64세: 151%)의 경우에도 15~34세에서 지역격차의 정도가 더 컸다.

〈표 7〉 전문가/사무 종사자 직종별(중분류) 취업자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단위: %, 천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년 취업자 수	
									비수도권	수도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중분류)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68.1	81.0	56.7	61.7	77.6	33.1	44.2	29.1	45	58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460.4	444.5	404.3	407.2	408.7	417.2	455.1	473.9	76	436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35.2	33.6	39.8	35.2	51.0	47.8	51.0	60.3	341	546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4.8	-3.2	-6.0	-10.2	-9.8	-5.1	-6.2	-3.7	764	73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8.8	4.0	3.0	1.8	1.5	11.7	7.8	9.3	570	623
법률 및 행정 전문직	70.4	74.4	76.4	65.2	25.2	81.8	34.7	41.9	29	41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160.5	156.7	140.3	134.8	139.4	136.3	150.2	169.5	151	40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08.3	205.2	196.8	177.8	191.2	174.5	178.8	173.9	175	479
사무 종사자(중분류)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3.3	23.8	25.6	29.1	27.0	25.5	25.7	28.1	1,730	2,216
금융 사무직	53.4	38.9	24.2	20.5	23.0	28.4	33.2	40.1	132	184
법률 및 감사 사무직	103.7	81.3	74.3	92.9	84.3	89.9	114.4	111.2	27	56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55.5	48.1	49.4	46.8	54.7	69.2	74.2	78.8	144	258

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비율(%)은 $\frac{[(\text{수도권 취업자 수} - \text{비수도권 취업자 수}) \times 100]}{\text{비수도권 취업자 수}}$ 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A형), 2013~2020년. 저자 작성.

4. 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 직종별(중분류)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표 8〉은 취업자 수의 지역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중분류 직종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나타낸다. 2020년 기준으로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의 임금격차는 월 59만 원(비수도권 평균 임금 대비 약 16%)이며,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708만 원(59만 원×12개월) 수준이다.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의 임금격차는 약 22%(월 83만 원, 연간 996만 원),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은 약 24%(월 57만 원, 연간 684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구분하였을 때도 직종별 임금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의 경우 여성에서 더 큰 격차를 보였다. 2020년 기준으로 남성의 임금격차는 약 16%(월 60만 원, 연간 720만 원)인 반면, 여성은 약 23%(월 69만 원, 연간 828만 원)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15~34세와 35~64세로 구분한 경우에도 임금수준의 지역격차가 확인된다.

〈표 8〉 전문가/사무 종사자 직종별(중분류)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단위: %, 만 원/월)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년 명목임금	
									비수도권	수도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중분류)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14.5	5.9	-1.8	-3.4	-9.6	-2.1	-0.6	12.1	355	398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9.5	8.3	4.4	10.2	12.9	13.7	16.1	15.8	376	435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8.1	13.6	9.5	11.0	13.3	11.5	13.3	15.5	388	449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7.1	11.2	10.3	9.0	7.6	4.8	4.8	8.1	261	282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4.6	-3.5	-7.6	-4.8	0.0	-5.2	-5.0	-4.8	328	312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1.0	12.4	14.9	9.3	15.2	14.6	19.6	15.7	577	66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30.8	28.7	27.7	34.8	33.7	27.6	24.7	21.5	385	46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16.5	18.6	21.7	22.2	18.1	15.9	20.7	24.2	237	294
사무 종사자(중분류)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6.5	6.9	4.5	4.6	4.8	4.3	2.9	2.0	314	320
금융 사무직	14.1	13.2	8.4	13.0	10.2	15.1	12.0	9.2	395	431
법률 및 감사 사무직	20.8	22.7	13.6	16.4	12.6	23.3	6.4	-2.3	369	361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7.2	6.7	3.2	7.9	3.6	1.0	6.1	2.1	214	219

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비율(%)은 $\{(\text{수도권 평균임금} \div \text{비수도권 평균임금}) \times 100\} - 100$ 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A형), 2013~2020년. 저자 작성.

IV. 시사점

전술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의 상대적 임금수준 하락과 일자리 감소가 진행된 반면, 수도권에서는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이 부상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에 대한 고임금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고숙련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집중할 경제적 요인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요약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고용 승수효과를 고려할 때, 수도권의 정보통신업 고용 증가와 비수도권 제조업 고용 감소는 각 지역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종의 일자리 분포에도 영향을 끼쳐 일자리 지역격차를 더욱 심화했다고 판단된다. 제조업과 같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주로 타 지역에 수출하는 업종(교역부문, tradable sector)의 취업자는 추가 소득을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내 소비는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재화와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종(비교역부문, non-tradable sector)에서 추가적인 매출과 고용을 창출한다. 이종관(2019)의 연구에 따르면,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일자리가 1개 늘어날 때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서비스 일자리 수(5.8개)는 전통 제조업(0.9개)에 비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용 승수효과를 고려하면, 지식기반산업이 부상한 수도권에서 정보통신업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증가는 해당 업종의 고용 증가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역 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판단된다. 반면 전통 제조업의 취업자가 감소한 비수도권에서는 지역서비스업 일자리 역시 감소하여,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일자리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기반산업을 인위적으로 재배치하는 정책은 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지식기반산업은 지리적 집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징을 보인다(이종관, 2019). 집적경제의 특징이 강한 지식기반산업을 인위적으로 재배치할 경우, 기존 집적지의 집적경제 효과는 약화되지만, 신규 입지에서 이전 수준의 집적경제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 혁신의 중요 요소인 지식의 창출과 전수는 각 지역의 기업, 연구기관, 지방정부 간에 형성된 지역 네트워크의 제도적 토대(institutional infrastructure; 예: 제도, 문화적 맥락, 신뢰, 관습 등)에 영향을 받는다(Storper, 1993; Florida, 1995). 이러한 지역혁신의 제도적 토대는 장기간 진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경로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Asheim and Gertler, 2006; Simmie, 2011; Kang and Dall'erba, 2016에서 재인용). 따라서 산업 집적지를 인위적으로 재배치하더라도 기존 집적지의 제도적 토대는 옮기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입지에서 혁신과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의 정도는 기대 이하일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지역격차의 완화를 이유로 지식기반산업을 인위적으로 재배치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셋째,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산업전환을 기회로 삼아 비수도권 제조업 중심지가 혁신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최근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전환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도 동일한 상황이다. 이러한 산업 환경변화는 해외로의 생산 오프쇼어링과 고속련 인력의 수도권 집중을 경험하는 비수도권 제조업에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 자동차의 전장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전환은 기존 제조업 기술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기술 등 서로 다른 업종 기술 간 융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을 의미한다. 새로운 융합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이루어지며, 자유로운 테스트베드와 긴밀한 산·학·연 협력이 가능할 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비수도권에 입지한 전통 제조업 중심지에 이러한 혁신 환경이 조성되어 융합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면, 비수도권에 새로운 유형의 '탄소중립기반산업'이 부상하여 수도권의 지식기반산업과 같은 고용 승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제한된 연구 기간과 2021년 이후 지역별고용조사 미시자료의 접근방식 변경으로 분석기간을 2013~2020년 기간에만 한정할 한계가 있다.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은 일상생활의 비대면 중심 전환,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등 삶과 일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를 일으켜 지금까지도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20년 이후 일자리 분포의 지역격차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야기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후속 연구에서 이를 살펴볼 것을 기약한다. **KLI**

[참고문헌]

- 김태완 외(2023), 『한국사회 격차현상 진단과 대응전략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간 예정.
 구형수·배유진·윤세진·강동우·조성호(2018),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20-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상호(2022),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 한국고용정보원.
 이종관(2019), 「제3장 지식경제 시대의 일자리 창출 결정요인: 지역 고용 승수효과 추정」, 최경수 편, 『지식경제 시대의 일자리창출 전략』, 연구보고서 2019-12, 한국개발연구원.
 최광성·강동우·최충(2018), 「지역이동이 대졸자의 임금 변화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

- 집』 41(2), pp.61~88.
- 한요셉·윤참나(2021),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에 관한 연구: 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21-09, 한국개발연구원.
- Asheim, B. T. and M. S. Gertler(2006), "The Geography of Innovatio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J. Fagerberg and D. C. Mowery(eds.), *The Oxford Handbook of Innov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291~317.
- Florida, R.(1995), "Toward the Learning Region," *Futures* 27(5), pp.527~536.
- Kang, D. and S. Dall'erba(2016), "Exploring the Spatially Varying Innovation Capacity of the US Counties in the Framework of Griliches' Knowledge Production Function: A mixed GWR approach," *Journal of Geographical Systems* 18(2), pp.125~157.
- OECD(2007), "Competitive Cities in the Global Economy," OECD Territorial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 Simmie, J.(2011), "Learning Regions," P. Cooke, B. Asheim, R. Boschma et al.(eds.), *Handbook of Regional Innovation and Growth*, Cheltenham, Edward Elgar, pp.547~555.
- Storper, M.(1993), "Regional "Worlds" of Production: Learning and innovation in the technology districts of France, Italy and the USA," *Regional Studies* 27(5), pp.433~455.